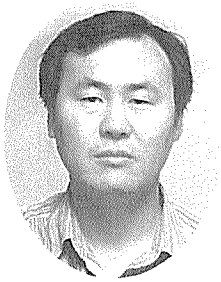


# 국제석유분쟁과 자원안보



김규환  
< 대한매일 기자 >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석유자원 확보를  
둘러싼 국제분쟁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유** 럽 열강의 식민지 통치를 받았던 수많은 국가들 가운데 원주민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웃 나라에 최소한의 자결권마저 침혹하게 짓밟힌 지역은 드물다. 그런데 최근들어 자치·독립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동티모르가 그 최악의 경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지난 75년 인도네시아에 강점된 동티모르의 침략사에는 짙은 피내음과 함께 석유냄새가 묻어나온다. 동티모르 동쪽 해안과 호주 대륙 사이로 흐르는 티모르해에 매장돼 있는 거대한 유전이 있는 탓이다.

세계 최대 유전지대의 하나로 꼽히는 이곳은 94년부터 엘랑·쿠쿠투아·바유우단 등지에서 본격적인 석유채굴 작업이 시작됐다. 이중 바유우단유전의 매장량을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19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00여년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아온 동티모르를 인도네시아가 강제합병한 것은 자국의 석유자원이 바닥날 때를 대비한 장기 포석인 셈이다.

파도 사이로 보일듯 말듯한 작은 섬 5개와 암초 3개로 이뤄진 동중국해의 조어도(釣魚島·일본명 센카쿠열도), 한때 물새들의 휴식처로만 여겨져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조어도도 중국·타이완(臺灣)·홍콩·일본이 영유권을 놓고 일으키는 높은 파도에 휩싸였다. 겉으로 보면 무인도에 불과한 이 섬에 여러나라가 집착하는 이유를 잘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사실은 해저에 있는 100억~1,000억배럴 규모로 추정되는 거대한 유전과 풍부한 어업자원이 이들 당사국의 민족감정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영국과 아르헨티나는 82년 4월 아르헨티나 앞바다에 있는 영국령 포클랜드섬을 놓고 한바탕 전쟁까지 치렀다. 당시 레오폴도 갈티에리 아르헨티나 군사정권은 포클랜드를 기습 점령, 74일동안 영국과 전쟁을 치렀으나 결국 참패했다. 포클랜드 해역은 북해유전의 지질과 비슷해 엄청난 양의 석유가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 까닭이다.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석유자원 확보를 둘러싼 국제분쟁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세계의 화약고'로 불리는 중동 뿐 아니라 에게해의 조그마한 바위섬 이미아(터키명 카르다)를 놓고 그리스와 터키가 50년이 넘도록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고, 카스피해 해저의 2,000억배럴 규모의 유전을 둘러싸고 러시아·이란·아제르바이잔·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 등 5개국간에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10억배럴 규모의 석유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남사군도(南沙群島·스프래틀리)에는 중국·베트남·필리핀·말레이시아·브루나이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치하고 있고,

아라비아반도와 아프리카 사이에 있는 하니시제도를 놓고 예멘과 에리트리아는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다.

이처럼 세계 각국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석유 확보전을 펼치는 것은 급격한 산업화로 석유소비량은 날로 급증하는데 비해, 석유자원은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석유만 확보할 수 있다면 전쟁도 서슴지 않겠다는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98년말 기준으로 전 세계 석유매장량은 약 1조 346억 6,877만배럴, 하루평균 소비량은 6,630만배럴로 추정된다. 지금의 추세라면 50~60년정도 밖에 못 버틴다. 더욱이 지구촌의 산업화로 석유 소비량이 해마다 2% 정도 늘어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 때문에 석유자원이 부족한 나라들은 공동탐사 작업을 벌이는 등 석유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승부를 벌였던 영국과 아르헨티나는 '구원(舊怨)'을 풀어버리고 포클랜드 주변해역에 공동 석유탐사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고도성장으로 수입국으로 전락한 중국도 '정치적으로는 원수'인 타이완과 함께 공동탐사·개발을 결정했다. 일본은 사할린 인근해역에 매장된 석유개발을 위해 러시아·미국 등이 추진하는 '사할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기름 한방울 나지 않아 '석유 외풍'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안정적인 석유공급이 최대의 관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석유자원이 풍부한 국가들과의 자원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정부가 최근 모스크바에서 러시아의 이르쿠츠크 및 사할린 프로젝트 등 해외 유전개발사업 참여를 적극 모색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석유수입의 76% 이상 의존하는 중동에서 탈피, 중국과 러시아 등과 긴밀한 교류를 통해 수입선의 다변화도 꾀해야 하며, 해외 유전개발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자본투자를 통한 단기수익을 얻기보다 기술력을 우선시하는 투자를 함으로써 장기적인 석유확보에 나서야 한다.

특히 대체 에너지 개발은 정부의 정책의지 결여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풍력·태양열·태양광 등 대체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1%에도 못미치는 실정이다. 따라서 대체 에너지를 개발, 상용화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투자가 이뤄지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차제에 정부의 에너지 절약정책도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승용차 10부제, 한동 끄기 운동, 함께 타기 운동 등과 같은 소비자를 제약하고 간섭하는 프로그램에만 집착하다보니 산업 배치, 도시 개발, 교통체계 개선 등의 에너지 저소비업종으로의 전환 등과 같은 거시적인 정책이 실종돼 버린 것이다.

19세기의 식민지 쟁탈전이 20세기 세계대전 of 발미가 됐듯이 석유자원을 둘러싼 각축전은 21세기의 세계질서 재편에 주요한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석유확보전은 민족주의와 경제 실리가 얽히고 설켜 복잡한 분쟁이기 때문이다. ☯

안정적인 석유공급이  
최대의 관건인  
우리나라는  
석유자원이 풍부한  
국가들과의 자원외교를  
강화해야 한다.